

금연글짓기 대상작

누구에게나 해롭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좋지 않은 담배 연기. 어린아들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담배로 병들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일까. 요즘은 간접흡연이 몸에 나쁘다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금연홍보 디자인 및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공모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제14회 금연글짓기 공모 대상작들이다.



사랑의 힘

강영서(제주시 도남초등학교 2학년)

‘땡땡, 땡땡!’ 오늘도 어김없이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입에서 담배 냄새를 피우시면서 “우리 영서 어디 있니? 할아버지랑 뽀뽀해야지!” 하시며 저를 귀찮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주 지는척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 이모께서 오셔서 같이 ‘인체신비’ 라는 전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까맣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때 나는 안내원 언니께 저게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놀란 것은 우리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그때 아기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빨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알려드려도 담배를 빨리 끊으시지 않으셨지요.

몇 달 후에 우리 가족은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셔서 “영서야, 뽀뽀” 하시는 거였지요. 나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할아버지 얼굴을 밀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매우 섭섭해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갑자기 담배를 끊으셨는지 나는 궁금하여 할머니께 여쭙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서야, 할아버지께서는 너를 사랑하셔서 힘든 일을 결심한 거란다. 담배를 끊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셔서 끊으실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시며 “그러니 영서도 할아버지께 더 잘하렴” 그 말을 들은 나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낼 기간이 많이 없어서 더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은 ‘사랑의 힘’ 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삼촌께서는 담배를 못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촌께 담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나쁜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어른들께 담배가 몸에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더 잘 말해볼 계획입니다.



내 마음 속 국군아저씨께

정지영

(경남 거창군 남하초등학교 6학년)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내 마음 속 국군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남하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정지영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편지글을 아저씨께 쓰는 까닭은 제 꿈이 국군이 되는 것이고 멋진 국군아저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먼저 우리 학교부터 소개하고 우리 집과 제 자랑을 할게요. 우리학교 이름은 남하초등학교이고 전교생 수는 20명입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학생수가 적은 것입니다. 제가 속한 6학년은 2명인데 우리 선생님은 남자선생님입니다. 컴퓨터도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도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가 난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지금까지 못 보았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았더니, 담배를 피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담배만 안 피우시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참 우리학교 자랑을 한다고 했지요. 우리학교 학생수는 이렇게 적지만 지난 해 우리학교 소식이 신문에 열 번도 더 실렸습니다. 졸업을 한 언니들이랑 우리들이랑 열심히 책을 읽고 글짓기도 하고 독후감도 써서 전국대회에 입상하고, 거창군에서 최우수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경상남도 가정의 달 글짓기대회와 경상남도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최우수단체상도 받았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아저씨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는 이 편지를 어떤 아저씨가 받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거의 남자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자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아빠 말씀으로는 군대란 곳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곳과는 많이 다르며 우리가 모르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향에도 무척 오고 싶다고 하시며,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아저씨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 생각으로는 담배 말고도 취미생활을 하거나 독서를 하시면 되는데 왜 많은 군인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학교는 작년에 금연술선학교가 되어 여러 가지 금연행사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운동회 때 금연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학교에서 우리에게 금연 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를 사주어 체육대회가 금연체육대회로 되었습니다.

운동회에 오신 모든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이 금연 캐릭터 티셔츠를 학교에서 사서 드렸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선생님 얼굴과 손과 발만 나오게 널빤지로 만든 큰 직사각형 상자를 운동장 가운데 두고는 우리들이 물풍선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얼굴과 옷이 전부 물에 젖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기죠?

국군 아저씨, 제 편지를 읽으시는 아저씨는 참 행운의 아저씨예요.

왜냐고요? 제 글을 읽으면 담배를 안 피우실 테니까요.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우리 선생님도 담배를 피우고 나니 못 끊는가 봐요.

저하고 꼭 약속해요. 담배 안 피우신다고요.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거라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길 게 분명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조금씩 건강이 악화되다가 만약 병에 걸리면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가 많겠습니까? 텔레비전을 통해 보이는 국군아저씨들이 늙은 모습 뒤로는 분명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다 국군아저씨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자그마한 흰색 담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아저씨, 내 마음 속의 국군아저씨!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아끼신다면, 담배의 유혹 정도는 멀리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정말 멋진 군인아저씨로 군대에서 생활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군 아저씨 힘내세요. 파이팅!

2008년 4월 25일

국군아저씨를 사랑하는 지영이가 드립니다.